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으로 맥을 뻗어 내리다가 다시 태백산을 거쳐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르는 국토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 산줄기를 이루는 주요 산은 백두산을 기점으로 포태산, 두류산 등 해발고도 2000m를 웃도는 고봉으로 이어져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양분한다. 한마디로 한반도의 등줄기나 마찬가지다. 서울의 젓줄이라 불리는 한강도 바로 이 백두대간에서 발원이 되고, 대부분의 산 역시 백두대간을 뿌리로 두고 있다. 등산이라고는 도봉산에 올라본 경험이 유일무이한 기자로서는 도무지 그 웅장함을 알 길이 없다.

백두대간이라고 하면 모 업체의 맥주 CF부터 떠올릴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그런

데 모르긴 몰라도 이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것이 산사람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목표이자 명예요, 숙명적 과제인가보다. 진정한 산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통과 의례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산악인구가 많아지고 백두대간 종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점에 가면 이와 관련된 서적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이 짜임새와 재미를 곁들인 산악지침서들이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은 색다른, 무려 2년여에 걸쳐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기며 백두대간을 종주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와 화제다. 전문 산악인이 아닌 평범한 중년의 인쇄인이 그 주인공이다.

박용기 삼조인쇄(주) 회장의 백두대간 종주기

백두대간 종주기 산인이 되리란



산이 깨우쳐 준 인생의 참다운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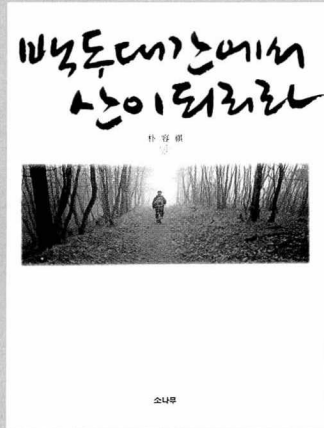
“백두대간은 나에게 고통을 재현해 체험케 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전율케 했으며, 삼복의 끔찍한 산속 더위로 우리의 영육을 말라붙게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엄한 스승, 자상한 누나, 업혀서 자란 엄마 같은 이모, 친한 친구, 어렵지만 한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나를 가르쳤습니다. 큰 스승이요,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서문에서)

‘백두대간에서 산이 되리라’의 저자 박용기(삼조 인쇄 대표이사) 회장은 산악인이기에 앞서 30년간

오로지 인쇄라는 한 우물만 파 온 ‘전문인쇄인’이다. 그런 그가 백두대간 종주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 냈다.

북한산 등정이 계기가 되면서 산을 좋아하게 된 그에게 IMF 위기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다. 환율로 인해 인쇄기 리스비용은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오르는데 일감은 뚝 떨어졌다. 도무지 해결책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상황. 벼랑 끝에 서있던 그를 말없이 보듬어준 것이 산이었다. 혼자서 걷고 또 걸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공장이 매각되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나긴 인고의 세월을 지나 재기에 성공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쇄사라 자부하는 공장도 지었다. 이렇게 맺어진





연과 동고하는 정부정부같은 길이다. 산길은 굽고 희미하니 소위 말해서 경제적이지 않은 길이다. 산길은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손으로 빛은 도자기 같은 길이다. 산을 내려오면 현대의 길 위해 인간은 삶을 의탁한다. 현대의 길은 직선적이고 기능적인 길이다 현대의 길은 그래서 경제적인 길이다. 그러나 현대의 길은 자연을 깔고 앉은 길이다”

산과의 인연. 그의 산사랑은 백두대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2002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년여 동안 백두대간을 종주했다. 저자에게 있어서 산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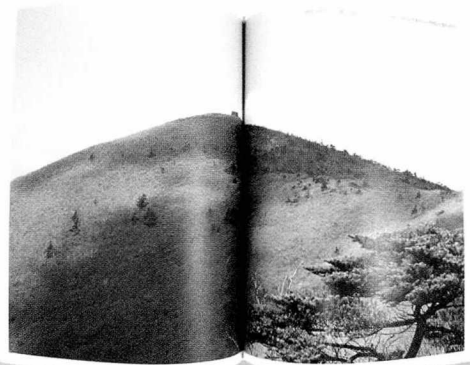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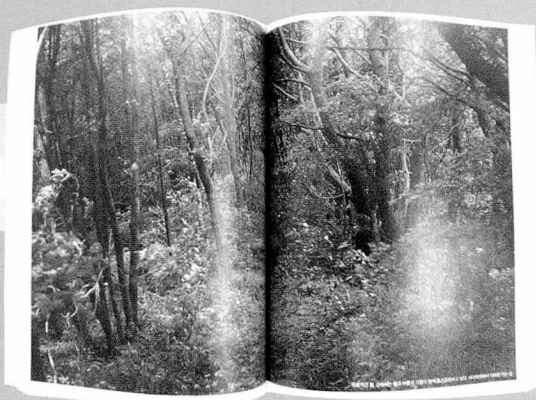
“지난번 덕유산을 걸으며 다시 대간에 발을 얹으면 개XX라고 까지 했었는데 건망증 많은 인간이라 그런지 오늘도 그 고통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중략)

산길은 굽은 길이다. 또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는 길이다. 산길은 자연에 얹혀사는 어찌 보면 자

그가 산이 부른적이 한번도 없음

에도 산에 오른 일을 후회한 적이 없는 이유이다.

이 책은 단순한 종주기가 아니다. 저자는 백두대간 종주를 안내하는 내용과 더불어 가장으로서 느끼는 가족에 대한 애뜻함을 함께 엮어내고 있다. 여기에 백두대간 속에서 떠오른 기억과 꿈, 산행을 하면서 겪은 기묘한 일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인생의 참다운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함께 던진다. 저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삶의 소중함과 인연의 진중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백두대간 곳곳에 깃든 역사적 이야기는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 그 이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인쇄인으로서의 자부심 잊지 않아

“일반인들은 인쇄업이 막대한 자본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문화 산업임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이런저런 분노로 심사가 사나워진다. 그런 내가 구원을 찾은 것은 산행이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쇄는 '지옥과 천당의 경계에 있는 업종'이다. 기계가 놓고 있으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일이 몰리면 24시간 돌려도 소화가 안된다. 이럴 때는 낚기 문제로 피말리는 신경전과 실랑이를 해야 한다. 발주자와 피발주자 사이의 일방적인 관계는 인쇄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니 인쇄업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저자는 산에서 분노를 내려놓고 망가진 몸을 수습했다. 덕분에 멀리 볼 수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냉정하게 반성도 할 수 있었다. “산에서 절하고 비는 작은 의식들은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정숙한 제의였다”고 그는 고백한다.

“너와 나는 인생의 대간길에 서 있는 동반자”
“어쩌면 인생은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백두대간 길을 그대로 닦았다.”

맞는 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기 마련. 좋은 인연이 있는 반면 기억조차 싫은 불쾌한 인연도 마주쳐야 한다. 내리막길과 같은 극도의 긴장감도 있을 수 있고, 평지같은 길의 편안함 또한 함께 존재하며, 급한 오르막길처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 인생을 누가 대신 살 수 없듯이 그 기나긴 대간길을 걸어가는 것 또한 철저히 자신의 몫이다.

이 책은 백두대간을 이미 다녀온 사람은 자신의 자랑스런 기억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 백두대간에 오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도 나름대로 백두대간에 오르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산을 실제로 오르느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뜻 깊은 백두대간이란 인생을 오르는 동시대인으로서 인생의 대간길에서 만나는 것임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